



신라의 건국신화와 關英

Founding Myth of Silla and Aryeong

저자 (Authors)	김선주 Kim, Sun-joo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23), 2011.12, 113-143 (31 pages) SILLASAHAKPO , (23), 2011.12, 113-143 (31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13
APA Style	김선주 (2011). 신라의 건국신화와 關英. 신라사학보, (23), 113-14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7 14:1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건국신화와 關英*

김 선 주**

- | | |
|-------------------|---------------------|
| I. 머리말 | IV. 알영족과 6村(部)과의 관계 |
| II. 건국신화 속의 알영 전승 | V. 맺음말 |
| III. 알영의 족단 기반 | |

【국문초록】

알영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은 혁거세 못지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알영은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혁거세와 함께 二聖으로 칭해졌다. 나아가 건국시조를 시조모가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전승에서는 오히려 알영이 혁거세 보다 더 부각되어 있다. 이는 신라의 건국과정에서 알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재)표암문화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신라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신라의 건국과 사로육촌’(2011.10.7., 경주 힐튼호텔)에서 공개 발표를 거쳐 이루어졌음.

** 다산학술문화재단 전임연구원

주요 논저 :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6 :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史學研究》 99, 2010.9 : <《삼국사기》를 통해 본 고대 삼국의 왕비 비교> 《페미니즘연구》 10권 2호, 2010 가을 외 다수

건국신화에 실려 있는 독자적인 탄생담이 실려 있는 경우 시조 전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알영 역시 신라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력 집단의 시조 전승으로 이해하였다. 지금까지 알영은 閔智를 시조로 하는 김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라사 초기에 왕위를 점유했던 소위 ‘박씨(朴氏)’로 표현되어 왔던 세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박씨’로 표현되었던 세력은 신라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6村(部) 가운데 하나인 高墟村(沙梁部)과 관련이 있으며, 《三國志》 진한조에 거론된 사로국의 실체가 바로 고허촌(사랑부)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신라사에서 초기 왕계에 등장하는 소위 ‘박씨’로 표현되었던 집단은 경주를 기반으로 한 사로국의 지배세력이었다. 알영은 이 사로국 단계에서,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소위 ‘박씨’ 세력이 시조로 인식했던 존재였다. 그러나 사로국과 인근 주변 소국들이 흡수 통합되고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시조 전승은 건국신화에 포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가 형성되었고, 신라의 모체인 사로국의 시조였던 알영은 신라의 건국신화 속에 포용되면서 시조비로 편제된 것으로 이해했다.

주제어 : 新羅, 閔英, 건국신화, 始祖妃, 赫居世, 朴氏, 高墟村, 斯盧國

I. 머리말

우리나라 고대 양대 사서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들 사서에 실려 있는 신라의 건국신화는 시조왕인 혁거세만이 아니라 시조비인 알영, 혁거세 추대 세력인 육촌 전승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와 알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시조전승을 근간으로 형성되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많은 부족

의 시조전승을 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

신라의 건국신화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알영이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은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나 백제 등 다른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비의 존재가 미미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신라에서는 시조를 시조모가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전승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알영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이 비중 있게 나타난다는 것은 신라의 건국 과정에서 알영이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건국신화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혁거세에 비해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알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알영에 대해서는 시조묘 제사와 관련하여 주목한 적이 있는데,²⁾ 여기에서는 신라사 초기 국가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알영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신라의 건국 신화 속에 알영 전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조비로 위치 지워진 알영의 족적 기반과, 알영과 6村(部)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신라사에서 알영 전승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알영에 대한 이해는 건국 세력 등 신라의 초기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 金杜珍, <新羅 建國神話의 神聖族 관념> 《韓國學論叢》 11, 1988 :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1999, 259쪽.

2) 金선주, <신라의 알영전승과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01.

II. 건국신화 속의 알영전승

신라의 건국신화는 우리 고대 양대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나타난다. 먼저 혁거세와 알영 전승을 중심으로 두 사료에 실려 있는 건국신화를 검토해 보겠다.

A. 《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1, 始祖赫居世居西干

- 1) [즉위년]① 시조. 성은 朴氏이고 이름은 赫居世이다. 前漢 孝宣帝 五鳳 元年 甲子 4월 丙辰(혹은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에 왕위에 오르니, 이를 居西干이라 했다. 그때 나이는 13세였으며, 나라 이름을 徐那伐이라 했다.
 - ② 이보다 앞서 조선 유민들이 산곡 사이에 나뉘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 첫째 關川楊山村, 둘째 突山高墟村, 셋째 觜山珍支村(혹은 于珍村이라 한다), 넷째 茂山大樹村, 다섯째 金山加利村, 여섯째 明活山高耶村으로 이들이 辰韓 六部가 되었다.
 - ③ 고허촌장 蘇伐公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蘿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이에 가보니 문득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었다. 이를 갈라보니 갓난아이가 나왔다. 거두어 길렀는데, 나이 10여 세가 되자 재주가 특출하고 숙성하였다. 6부인들은 그 출생이 신이하므로 이를 받들고 존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받들어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 辰人은 瓠를 박이라 했고 처음에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杓으로 성을 삼았다. 거서간은 辰 사람들의 말로 왕을 가리킨다. 혹은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한다.
- 2) [5년]봄 정월에 용이 關英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老嫗가 발견하여 기이하게 여기고 거두어 길렀는데 우물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자라면서 덕스런 모습을 지녔다. 시조가 이를 듣고서 맞이하여 비로 삼았다. 행실이 어질고 안으로 잘 보필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二聖이라 불렀다.
- 3) [17년]왕이 6부를 돌며 위로했는데, 왕비인 關英이 동행했다.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하고 독려하여 땅의 이로운을 모두 얻도록 했다.
- 4) [61년]봄 3월에 거서간이 세상을 떠나 蛇陵에 장사지냈다. 曇巖寺의

북쪽에 있다.

B. 《三國遺事》 권1, 기이1, 新羅始祖赫居世王

- ① 진한 땅에는 옛날 六村이 있었다…중략…위의 글을 살펴보니 이 六部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노래왕 9년 처음으로 육부명을 고치고 또 육성을 하사하였다. 지금 세속에서는 중흥부를 母로 하고, 장복부를 父로 하고, 임천부를 子로 하고 가덕부를 女로 하는데 그 실상은 자세하지 않다.
- ② 3월 초하룻날 6부의 조상들이 각각 자제들을 데리고 다 함께 關川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어 보내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때에 모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楊山 및 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웬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또는 푸른 빛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 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東泉(東泉寺는 사쳐벌 북쪽에 있다.)에서 목욕을 시키매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왕(아마도 鄉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광명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西述聖母가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의 仙桃聖母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배어 나라를 창건했다.’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鷄龍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이 아니겠는가?)이라고 하고 왕위의 칭호는 居瑟邯(혹은 居西干이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처음 입을 열 때에 자신을 일컬어 말하기를 關智居西干一起라 하였으므로, 그의 말에 따라 이렇게 불렀으니 이로부터 임금의 존칭으로 되었다.)이라 하였다.
- ③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女君을 찾아서 배필을 정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沙梁里 關英井(또는 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에서 鷄龍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童女(혹은 용이 나타나 죽으며

그 배를 가르고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 같은지라 월성 북천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튕겨져 떨어졌으므로 그川の 이름도 따라서 撥川이라 하였다.

- ④ 궁실을 남산 서쪽 기슭(지금의 창림사이다.)에 짓고는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 사내아이는 알에서 나왔는지라 [그 알은 박과 같이 생겼고 鄉人들이 瓠를 박이라 하므로 따라서 성을 차이라 하였다. 계집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의 나이가 열세 살이 되자 五鳳 元年 甲子에 남자는 위에 올라 왕이 되고 이어 여자으로써 왕후를 삼았다. 나라 이름을 徐羅伐 또는 徐伐(지금 京자의 뜻을 우리말로 서벌이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라 하였다. 더러는 斯羅 또는 斯盧라고도 하며 처음에 왕이 鷄井에서 낳으므로 혹은 일러서 鷄林國이라고도 하니 鷄龍이 상서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왕 때에 金闕智를 얻으면서 숲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고쳤다고 한다. 후세에 와서는 드디어 신라라고 이름을 정하였다.
- 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레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죽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내쫓아 못하게 하므로 五體를 五陵에 각각 장사지냈다. 역시 이름을 蛇陵이라고도 하니 담엄사 북쪽 왕릉이 바로 이것이다.

두 사서 모두 혁거세를 건국 시조로 알영을 시조비로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다. 말과 양산·나정, 용(계룡)과 알영정이 두 사람의 신이한 탄생담의 소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시조 혁거세가 13세에 즉위했다는 것이나 즉위 61년에 세상을 떠나 담엄사 북쪽에 있는 사릉을 장지로 했다는 서술도 같다. 또한 두 사서 모두 혁거세의 등장 이전 6촌(부)이라는 선주집단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사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성이나 전개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생시점과 관련하여 《삼국유사》기이편에서는 혁거세가 출현한 같은 날 알영도 출현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 《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는 혁거세의 탄생담을 즉위년 조에, 알영은 5년 조에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혁거세의 즉위를 13세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18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셈이다.

두 사람의 탄생 배경에 대한 서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갑작스럽게 출현한 두 사람을 고허촌장 소별도리와 老嫗가 각각 발견·양육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덕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움을 정할 것’과 ‘덕이 있는 女君을 찾아내어 배필을 정할 것’에 대한 선주세력인 육촌민의 염원과 두 사람의 출현을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서 육부 사람들이 왕만이 아니라 왕비의 출현도 함께 염원하여 두 사람이 출현한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특히 알영의 출생과 관련하여 女君의 출현을 염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알영이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5년조에 알영의 탄생담과 함께 알영이 자라면서 덕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이를 시조가 듣고는 맞이하여 비로 삼았다고 하여 남비 과정에서 혁거세가 중심인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을 염원하고 발견했던 육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함께 양육하고 13세가 되던 해에 동시적으로 혁거세를 왕으로, 알영을 왕비로 함께 추대한 것으로 나온다.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기록 역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61년에 혁거세의 薨去 소식과 함께 장지를 사릉으로 했다는 내용만이 서술되어 있다. 알영의 죽음은 언급이 없다.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혁거세와 동시적인 일로 알영의 흥거 역시 전하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혁거세의 경우 승천했다가 유해가 땅에 떨어져 흩어졌다는 내용인데 반해, 오히려 알영은 직접적으로 죽음을 언급하

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전반적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시조인 혁거세가 중심인물이며 알영은 시조의 배우자로 편제된 존재로 서술되었다는 느낌이다. 반면 《삼국유사》는 알영이 혁거세의 배우자 이상으로 좀 더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탄생과 성장, 왕과 왕비로서의 책립, 죽음 등의 전 궤적에서 알영은 혁거세와 병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알영이 연령, 지위, 권능 등에서 혁거세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마치 한 사람의 행적에 다른 사람이 부회되어 서술된 듯한 느낌을 준다.³⁾

그렇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것은 혁거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삼국사기》에서도 알영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주목할 점은 《삼국사기》 역시 시조비인 알영의 탄생담을 소개하고 있다. 탄생담의 내용에서도 알영이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神異를 기록하고 있다. 고대문헌에서 용은 대부분 능력을 지닌 王者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⁴⁾ 알영이 탄생담이 용의 출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삼국사기》에서 알영을 혁거세와 함께 二聖으로 칭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 5년 조에는 시조가 알영을 맞이하여 妃로 삼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二聖’으로 칭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⁵⁾ 38년 조에도 ‘우리나라는 二聖이 일어나심으로 인사가 바로잡히고 천시가 고르게 되었다’⁶⁾고 하여 두 사람

3) 혁거세의 본신을 알영과 일체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文暲鉉, <新羅建國說話의 研究> 《新羅史研究》, 慶北大學校 出版部, 1983, 39쪽).

4) 姜英卿, <新羅 傳統信仰의 政治·社會的 機能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1, 53쪽.

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卽位.

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38年.

을 함께 二聖으로 표현하고 있다. 17년조에는 6부 巡撫에 알영이 혁거세과 함께 동행하여 農桑을 勸督했다고 하여,⁷⁾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해차차웅 즉위 원년에도 ‘二聖이 나라를 버리시고 云云’이라는 표현이 보인다.⁸⁾ 후대에도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二聖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남해차차웅 즉위조 기사는 남해차차웅 즉위 이전에 알영의 흥거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혁거세의 흥거 한해 전인 60년 조에는 ‘두 용이 금성의 우물 속에 나타났다’고 하였다.⁹⁾ 이는 시조의 죽음에 대한 징조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용은 서거하기 전에 王薨을 예고하는 존재로 최고 정치담당자의 정치적 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¹⁰⁾ 그렇다면 알영의 죽음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는 《삼국사기》에서도 혁거세의 죽음에 알영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도 알영이 시조의 배우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역시 알영의 독자적인 탄생담을 소개하고 있으며, 왕비 책립에서 정치 활동, 죽음 등 일련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二聖이라는 표현은 알영이 혁거세에게 편입된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음 《三國遺事》의 기록은 혁거세와 알영이 부부가 아닌 다른 설정도 있음을 보여준다.

C. (선도산성모) 처음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

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17年.

8)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卽位.

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60年.

10) 姜英卿, 위의 논문, 1991, 55쪽.

으니 필경 혁거세와 알영의 두 성군(聖君)을 낳았을 것이다. 때문에 계룡·계림·백마 등으로 일컬으니 이는 닭이 서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¹¹⁾

위는 신라의 건국신화가 시조인 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독립적인 천강담과는 별개로 시조모가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의 시조모 전승에서 주목할 점은 ‘동국의 첫 임금인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 시조모가 낳은 존재가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알영과 혁거세는 시조모의 자식으로 남매관계가 된다. 그런데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의 자식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알영 역시 혁거세와 같이 건국시조로 인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나아가 알영을 혁거세와 함께 二聖이라고 칭했다고 했던 기록들과도 대입된다.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앞의 B에서 소개했던 《삼국유사》 기이편 협주에도 소개되어 있다.

D. 해설하는 이는 말하기를,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바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이 선도성모를 찬양하여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있음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¹²⁾

위의 자료 역시 신라에서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세웠다’고 여긴 시조모 전승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에서는 ‘서술성모’라는 이

11) 《三國遺事》 卷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事.

12)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

름을 가진 시조모가 알영 탄생과 관련되어 설명되어 있다. 위 D) 자료에서는 시조모가 오히려 알영과 친연성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다.¹³⁾

나아가 신라의 국명 유래와 관련하여 알영의 탄생담이 거론되기도 한다.

- E. 나라 이름을 徐羅伐, 또는 徐伐[지금 풍속에 京을 서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라 하고, 혹은 斯羅·斯盧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이 鷄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혹 나라 이름을 鷄林國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鷄籠이 祥瑞를 나타냈기 때문이다.¹⁴⁾

여기에서는 신라의 다양한 국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래를 ‘왕이 鷄井에서 탄생한 것’과 함께 ‘계룡이 상서를 나타낸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위의 설명 중에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다’는 전승의 주인공은 알영이다. 그와함께 국명 유래가 되었던 주인공에 대해 ‘왕’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왕’이라는 표현이 ‘후’의 오자이거나, ‘왕’자 밑에 ‘후’자가 탈락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¹⁵⁾ 그렇지만 ‘왕’이라는 글자를 ‘후’의 잘못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어쨌든 알영이 국명 유래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알영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계림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는 김씨의 시조로 알려진 알지의 탄생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 기록도 있다.¹⁶⁾ 그런데 여기서는 《삼국유사》 찬자가 시조비인 알영

13) 신라의 시조모 전승은 산신의 성격을 가지며, 신라 上代에 산신의 神體가 왕모, 왕비, 왕녀 등 왕실 여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姜英卿, 앞의 논문, 1991, 27~45쪽.)

14)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

15) 李丙燾, 譯註 《三國遺事》 修正版, 廣曹出版社, 1984, 196쪽.

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해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국명 유래를 알영과 관련하여 인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알영이 신라의 국명 유래로 설명될 정도로 상징성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위의 국호와 관련해서는 시조로 알려져 있는 혁거세의 존재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지금까지 문헌자료에 보이는 신라의 건국신화를 검토한 결과 시조비로 설정되어 있는 알영이 시조인 혁거세 못지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혁거세와 알영은 어느 한쪽의 우열관계를 뚜렷이 알 수 없을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났다.¹⁷⁾ 알영은 우리 고대 신화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조비로서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다. 보다 원형적인 건국신화로 여겨지고 있는 《삼국유사》의 전승에서 알영과 혁거세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연령이나 권위 등이 동격으로 나타난다. 시조모 전승에서는 알영 역시 건국 시조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함께, 오히려 알영이 보다 시조모와 친연성을 가지고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Ⅲ. 알영의 족단 기반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은 혁거세 못지않은 비중으로 그려지고 있다. 알영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왕력에서 알영의 이름이 娥伊英, 娥英으로도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堯임금의 두 딸의 이름인

1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9年.

17) 조동일, 《韓國文學通史》 1, 지식산업사, 1994, 92쪽.

18) 김선주,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史學研究》 99, 2010, 15쪽.

아황과 여영을 본 딴 것으로 후대의 허구로 이해하기도 했다.¹⁹⁾ 이름 외에도 알영의 출생이 용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은 후대에 미륵의 탄생설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후대적 관념이 지적되었다.²⁰⁾

그러나 후대적 요소가 보인다고 해서 건국신화의 배경이 되는 신라 초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영이라는 이름은 시조의 창세설화에서 근본 또는 알의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이름이 있었고, 뒤에 그것을 표현할 적에 당시로서는 娥化되었다고 할까 새롭다고 할 표현으로 음이 비슷한 아영을 끌어들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참고 된다.²¹⁾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여러 전승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라 건국과정에서의 역사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이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초기 신라사에서 알영이 그만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건국신화에는 형제나 부부로 표현된 관계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실제적 관계라기보다는 집단 관계를 상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형제 관계가 나타나는 백제나 가야의 건국 신화 역시 본래 두 부족 내지 성읍국가의 시조로서 각각 독립된 신화를 가졌으나, 그것이 연맹 왕국의 건국신화로 흡수되면서 형제로 나타났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²²⁾

19)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名のについて> 《東洋學報》 15-2, 1925.

20) 金杜珍, <新羅 建國神話의 神聖族관념>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1999, 282~289쪽.

21) 金哲垞, <新羅 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 《韓國 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75쪽.

22) 金杜珍, <新羅 關智神話의 형성과 神宮>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1999, 327쪽.

그렇다면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혁거세와 부부로 설정되어 있는 알영 역시 신라의 건국과정에서 유력했던 특정 집단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영은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 족단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²³⁾

알영을 알지와 같은 족단으로 이해했던 근거는 알영과 알지 모두 알(ar)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알영과 알지의 탄생담에 각기 鷄龍과 白鷄로 닭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였다. 알지는 奈勿王 이후 왕위를 독점하는 김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므로, 알영 역시 알지와 같은 김씨로 이해했던 것이다. 특히 신라 상고기 초기에 박씨와 석씨의 왕비로 關·阿老·阿婁·阿禮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金나라가 자신의 기반지였던 황금이라는 뜻을 가진 여진어인 阿祿阻에서 출발하여 국호를 삼았듯이 金姓 또한 關·阿老·阿婁·阿禮 등의 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했다.²⁴⁾ 이에 알영과 알지를 닭 토tem을 가진 동일한 알(ar)족, 김씨족으로 이해하였다.²⁵⁾ 나아가 알영을 김씨족의 여제사장이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²⁶⁾

그런데 알(ar)을 과연 金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대 借字表記체계에서 ‘金’에 대한 차자는 蘇文 내지는 素 등이며

23) 三品彰英, <古代朝鮮における王者出現の神話と儀禮について> 《史林》 18-1·2·3, 1936 : 《三品彰英論文集》 5, 平凡社, 1973, 538~545쪽; 金哲垞, 앞의 책, 1975, 179쪽; 金光洙, <新羅上古世系の再構成試圖> 《東洋學》 3, 1973, 14~25쪽; 金杜珍, 앞의 책, 1999, 90쪽; 盧重國, <鷄林國考> 《歷史教育論集》 13·14, 1990, 183쪽;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996, 68쪽; 윤철중, <赫居世神話의 祭儀와 歷史性> 《歷史와 說話》, 集文堂, 163쪽.

24) 金哲垞, 위의 책, 1975, 71쪽.

25) 盧重國, 위의 논문, 1990, 183쪽.

金杜珍, 위의 책, 1999, 328쪽.

26) 金杜珍, 위의 책, 1999, 328쪽.

신라에서 ‘쇠’로 읽혔을 것이라며, 金에 대한 새김(釋)이 關 또는 阿婁 등으로 차차될 수 없다는 견해가 참고 된다.²⁷⁾ 나아가 《三國遺事》에 전하고 있는 혁거세·김알지 설화에서 혁거세 또한 알지로 불리웠고, 이후 김알지의 출현이 혁거세의 고사와 같음으로 인하여 알지로 칭해졌다는 기록들을 통해서도 關(智)이 金氏姓과 무관하다고 보았다.²⁸⁾ 金氏姓이 알(ar)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알영이 알지가 공통적으로 알(ar)계 이름을 보인다는 것만으로 알지와 같은 김씨 족단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또한 알영을 알지와 같은 김씨 족단으로 이해할 경우 알영과 알지 시조전승이 어떻게 연결되며, 왜 두 명의 시조전승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김씨족 내에는 다른 여러 씨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뒤에 김씨 왕실이 세습되면서 김씨족 중심의 새로운 신화체계를 모색하려는 의식이 싹텄으며, 김씨 부족들 중에는 혁거세 시조전승과 동등한 시조관념을 모색하려는 의식이 싹터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지신족 체계를 중심으로 성립된 김씨 시조 전승 중 알지신화가 서서히 독립하여 독자적인 천신족 신화 체계를 이루어 나간 것으로 보았다.²⁹⁾

알영=김씨설은 시조인 혁거세를 상고기 초기에 왕위를 차지했던 박씨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짝을 이루고 있다. 혁거세를 박씨, 알영을 김씨로 이해하여 혁거세와 알영의 부부 설화는 박씨족과 김씨족의 연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두 사람의 탄생담에 등장했던 말이나 알, 용·우물 등을 분석하여 알영족은 지신족 계통으로, 혁거세는 천신족 계통으로 신라의 건국신화는 천신족과 지신

27) 朴南守, 위의 논문, 1987, 2쪽.

28) 朴南守, 위의 논문, 1987, 2쪽.

29) 金杜珍, 앞의 책, 1999, 331쪽.

족이 결합하는 체제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⁰⁾ 나아가 천신계인 혁거세로 상징되는 박씨는 유이민 세력으로, 지신계인 알영으로 상징되는 김씨 세력을 선주 토착 세력으로 보았다.³¹⁾ 그렇다면 내물왕 이후 왕위를 독점하는 김씨 집단이 신라 초기 왕위를 계승했던 박씨 집단 보다 선주 토착 세력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경주지역에 보이는 고고학적 정황과는 배치된다. 경주 지역에는 일정시기 적석목곽분이라는 묘제가 성행하였다. 적석목곽분은 외형의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하고 호화로운 부장유물로, 일정 시기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묘제로 여겨지고 있다.³²⁾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성행 시기는 마립간기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분을 마립간기의 묘제로 부르기도 한다. 적석목곽분이 성행했던 마립간기는 김씨들이 왕위를 독점하고 지배층을 형성했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적석목곽분의 사용 세력을 마립간기 김씨 족단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석목곽분의 출현이 단순히 묘제의 변화만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변화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적석목곽분은 경주지역에 출현한 이전의 묘제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묘제이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분의 기원을 고구려나³³⁾ 멀리 북방 시베리아에서 기원을 구하기도 한다.³⁴⁾ 이는 경주에 출현한 적석목곽분의 주인공은 이전의 묘제를 사용했던 세력과는 문화적 배경, 출신, 성장 배경이 달

30) 金哲垸, 앞의 책, 1975, 179쪽 ; 金杜珍, 앞의 책, 1999, 268쪽.

31) 金杜珍, 앞의 책, 1999, 328쪽.

32)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381~383쪽.

33) 姜仁求, <新羅 積石封土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 7, 서울대, 1981.

34) 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 《文理大教養講座》 1, 1972 ; 崔秉鉉, 위의 논문, 1992, 397~412쪽.

랐음을 보여준다.³⁵⁾

적석목곽분의 출현이 김씨 왕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³⁶⁾ 김씨 족단은 적석목곽분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적석목곽분이 선행 묘제를 계승한 것이 아닌 새롭게 등장한 이질적인 묘제이며 지배세력의 변화까지 동반한 것으로 이해할 때, 마립간기 이후 왕위를 독점하는 적석목곽분 사용 세력인 김씨 족단을 이전부터 경주지역에 선주해 있던 토착세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³⁷⁾ 나아가 지신계의 선주 토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알영 전승을 김씨 족단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알영은 신라 건국신화에서 독자적인 탄생담이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 사서에 등장하는 고조선을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 등 고대국가 중에 시조비로서 탄생담이 전승되고 있는 경우는 알영이 유일하다. 금관가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비 허황옥 역시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나지만, 수로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이주나 혼인 등이 나타날 뿐 신이한 탄생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대 건국 신화에서 신이한 탄생담은 주인공인 나라를 세운 시조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장치로 사용된다. 건국시조가 아니면서 탄생담이 전해지고 있는 알지, 탈해 등은 유력 집단의 시조 전승이었다. 탄생담은 유력 세력 집단의 시조 전승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탄생담을 가지고 있는 알영 역시 특정 집단의 시조로 인식되던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국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35) 崔秉鉉, 위의 논문, 1992, 415쪽.

36) 崔秉鉉, 위의 책, 一志社, 1992, 381~383쪽.

37) 의성지역에 있는 적석목곽분의 고�형을 주목하면서, 김씨 족단은 경주의 토착세력이 아니라 소백산맥일대의 중부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였던 진한계가 신라사회에 이주하면서 형성한 족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朴南守, <新羅上古金氏系の 起源과 登場> 《慶州史學》 6, 1987, 21쪽)

신라 초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알영을 김씨로 해석한 데에서는 시조 혁거세가 박씨라는 이해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모두 혁거세의 성씨를 ‘박’이라고 했고, 탄생담에 등장했던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성을 삼았다는 유래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혁거세=박씨 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신라에서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나타난 세 성씨 가운데 석씨는 탈해와, 박씨는 혁거세에 대입시키면서 알영은 남아 있는 김씨와 관련성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부부전승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두 집단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형제나 모자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로 설정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알영으로 상징되는 집단의 시조가 여성이었고, 혁거세로 상징되는 집단의 시조가 남성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부관계는 형제관계와 다른 특징이 찾아진다. 즉 후손이 공유된다는 점이다. 형제관계에서는 각자 후손들이 다르며, 이들 후손들은 형제 각각에 대한 조상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후손이 공유된다. 후손의 입장에서는 부부 모두가 조상이 된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은 혁거세와 부부로 형성되어 있다. 부부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알영의 자손들은 혁거세의 자손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남해차차웅 이하 혁거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소위 ‘박씨’로 표현되었던 상고기 초기 왕계는 알영의 후손도 되는 것이다. 알영은 남해차차웅 이후 상고기 초기 왕계를 차지한 소위 ‘박씨’ 왕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알영은 김씨보다 오히려 신라 초기 왕계를 차지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된 세력과 연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왜 혁거세 전승이 있는데 알영 전승이 있느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혁거세를 건국시조로 하는 전승이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혁거세 전승에서는 선민사상이나 다른 고대 건국시조에서 보이는 영웅 전승적 요소가 강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³⁸⁾ 이러한 요소는 혁거세 신화가 후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혁거세설화는 신라 개국 당초의 설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후일에 국론을 통일하고자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부족 신화의 위에 혁거세 설화를 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³⁹⁾

전승을 비교해 보면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강계 설화로 후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인 혁거세의 탄생과 즉위과정에서 6부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혁거세 전승이 6부의 성립 이후를 배경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혁거세를 건국시조로 하는 건국신화는 6부를 통합하고 초월적으로 성장한 집단이 경주의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았던 시점을 배경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⁰⁾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이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은 알영이 일정 집단의 시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알영 전승이 건국신화에 포용되었다는 것은 신라 건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신라 초기 왕계를 형성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되어 왔던 세

38) 金杜珍, 앞의 책, 1999, 275쪽. 그렇지만 여기서는 유이민 세력을 박씨, 선주 토착세력을 김씨로 이해했다.

39) 文暲鉉, 앞의 책, 1983, 36쪽.

40) 혁거세 전승의 형성 시점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력을 알영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씨의 시조로 알려졌던 혁거세는 특정 단위 정치체의 족단적인 시조가 아닌, 신라 전체의 國祖로서의 시조 전승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 초기의 왕위를 장악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되는 세력의 시조였던 ‘알영’의 중요성은 공식적인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비로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후대 계보를 부계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남해왕 이후 초기 왕계를 형성했던 세력들을 국가 시조인 혁거세와 연결시켜 ‘박씨’로 이해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IV. 알영족과 6村(部)과의 관계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와 알영 외에도 6촌(부)의 존재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혁거세 이전의 선주 세력으로 6촌(부) 세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건국신화의 상당부분을 6촌과 6촌장 시조 설명에 할애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각 촌의 시조가 특정 산에 내려온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조 전승은 산신 신앙과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6촌의 토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⁴¹⁾ 그렇지만 《삼국유사》찬자는 산에 내려온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여 배경으로 천신신앙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신라의 천신신앙은 정복자가 아니라 신성한 지닌 조상신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⁴²⁾

41) 조현설, <한국 건국 신화의 형성과 재편>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2003, 296쪽.

42) 姜英卿, 앞의 논문, 1991, 90쪽.

그렇다면 초기 왕계를 점유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되는 알영족과 이들 6촌(부) 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알영을 알지와 연결시켜 김씨로 이해했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알영을 전주 토착세력으로 보았다.⁴³⁾ 그에 반해 알영을 김씨 세력으로 이해하면서도 알영 신화에 지신족 관념이 스며있다는 것을 근거로 알영이 속한 집단을 본래 경주지역의 토착세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⁴⁴⁾ 그 이유는 혁거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경주지역에는 6촌이라고 불리는 토착 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알영이 토착민이라면 설화상 그녀는 6촌장 가운데 어느 하나와 혈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6촌의 장들과 알영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영의 탄생담을 살펴보면 알영은 특정 부(촌)가 알영의 탄생과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알영의 탄생 배경으로 ‘사랑’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사랑리에 있는 알영정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알영을 낳았다는 것이다.⁴⁵⁾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장소는 신화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랑은 《삼국유사》에서 혁거세 이전 전주세력으로 거론했던 6부 가운데 하나의 부명이다. 알영의 탄생지가 6부 중에 하나인 사랑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알영이 사랑부와 연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랑부의 전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모두 돌산고허촌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부의 전신인 고허촌은 건국시조인 혁거세의 탄생담에도 등장한다. 《삼국사기》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43) 金哲浚, 앞의 책, 1975, 179쪽 ; 金杜珍, 앞의 책, 1999, 90쪽.

44) 강종훈, 앞의 책, 2000, 81~83쪽.

45) 《三國遺事》 卷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혁거세를 고허촌장 소벌공이 발견하고 양육했다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전승으로 인해 혁거세를 고허촌 집단과 연결시키기도 하고,⁴⁷⁾ 고허촌은 혁거세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토착집단 가운데 하나이므로 혁거세 족단의 출자는 고허촌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⁴⁸⁾

혁거세의 탄생담을 보면 혁거세가 천강했던 장소로 양산이 거론되고 있다. 선주 세력으로 설명한 6촌 가운데 한 부명에 양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 혁거세는 고허촌보다는 양산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알천양산촌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만 알영은 고허촌의 후신인 사랑부 출신으로 표현하고 있어, 알영 족단의 출자는 고허촌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왜 혁거세의 탄생담에 고허촌이 등장할까? 고허촌은 시조인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한 주체세력이었다. 또한 고허촌은 시조비로 표현된 알영의 출신지였다. 건국신화에서 시조 부부가 모두 고허촌(사랑부)과 관련되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신라 초기 역사에서 고허촌(사랑부)이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고허촌은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는 다른 계통의 시조모 전승 계통에도 관련성이 나타난다. 시조모 전승의 무대는 선도산이다. 신라인들은 시조를 낳은 시조모가 선도산에 산다고 여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다⁴⁹⁾ 시조모 전승에서는 선도산 외에 서술, 서연이라는 명칭으로도 언급되었다. 《東國輿地勝覽》경주부 산천조에는 선도산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신라시대에는 西嶽

4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60年.

47) 노중국, 앞의 논문, 1990, 180~181쪽.

48) 강종훈, 앞의 책, 2000, 76쪽, 주 36.

49) 시조모 전승과 선도산의 관계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선주, <신라 선도산 전승의 역사적 의미> 《史學研究》 99, 2010에서 다루었다.

으로 불렸으며 그 외에도 西述, 혹은 西兄, 혹은 西鷹로도 불렸다고 하여,⁵⁰⁾ 시조모 전승에 보이는 선도산의 다양한 명칭과 일치하고 있다. 선도산은 경주 서천 너머에 위치한 산으로 현재에도 선도산, 혹은 서형산으로 불리우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선주해 있던 6촌(부) 세력의 시조가 산에 내려왔다고 했다. 고허촌 시조의 탄강지는 형산(兄山)이라고 하였다. 현재 경주에는 형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으로 안강지역의 북형산과 경주시내 서천 서쪽에 있는 서형산이 있다. 이 가운데 고허촌장이 하강했다는 장소로 주목되는 곳은 경주지역의 서형산이다. 혁거세신화에는 고허촌장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다가 혁거세를 발견한 것으로 나온다. 이 양산은 오늘날 남산에 비견되므로, 고허촌과 관련된 형산은 남산과 지근거리에 있는 서형산이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⁵¹⁾ 그렇다면 선도산으로 불리는 서형산이 고허촌 시조가 하강했다는 형산으로, 시조모 전승에서도 고허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에서 시조부부의 탄생담이나 시조모 전승에서 고허촌이 중요한 무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국신화가 신라 건국 초기의 역사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볼 때,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부부나 시조모 전승이 모두 고허촌(사랑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신라 초기 역사에서 고허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고허촌장으로 蘇伐이 등장한다. 이 소벌은 인명이 아니라 솟았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의 ‘솟벌’로

50) 《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山川.

51) 혁거세를 추대하기 위해 모인 곳과 발견된 곳을 모두 알친 양산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나희라, <신라초기 왕의 성격과 제사> 《한국사론》 23, 서울대 국사학과, 1990, 72쪽.)

해석되며 高墟는 바로 蘇伐의 漢譯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소벌은 서라벌을 약칭한 서벌과 같은 말로, 徐羅伐에서 ‘徐’는 高·上에 ‘伐’을墟에 대입시켜, 고허촌을 上邑·首邑으로 해석하였다.⁵²⁾ 沙伐, 蘇伐은 모두 高墟와 통하는 ‘숫은 벌’로, 이에 따르면 고허촌은 소벌, 서라벌, 서벌로 해석되는 것이다.⁵³⁾

《삼국유사》에는 혁거세가 즉위하였을 때 국호를 徐羅伐 또는 徐伐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보충 설명으로 斯羅, 斯盧라고 하였다. 신라의 모체가 되었다는 국명인 斯盧가 斯羅·徐羅伐·徐伐과 관련되며 나아가 蘇伐, 즉 고허촌과도 연계됨을 보여준다. 음운학적인 해석이 자의적으로 호를 위협이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이라는 명칭이 고허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라가 사로국을 모체로 성장한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로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혁거세 이전의 선주 6촌과 관련하여, 사로국을 구성하는 6개의 족단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⁴⁾ 그러므로 6촌은 본래 읍락이었으며 성읍 국가의 기반으로까지 발전한 상태에서 사로국에 편입된 것으로 이해했다.⁵⁵⁾

그런데 이와 달리 6촌을 삼한의 소국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⁵⁶⁾ 한반도 내에서 소국을 성립시킨 여타의 정치세력들의 경우 연맹장을 배출한 집단은 각각 독립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근거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에서 이사금의 위가 삼성에 의해 교립되었다고 한 것은 삼성이 각각 연맹장을 배출한 집단으로 이

52) 李丙燾, 앞의 책, 1985, 596쪽.

53) 金哲堧, 앞의 책, 1975, 140쪽.

54) 李丙燾, 위의 책, 1985, 598쪽.

55) 金杜珍, 앞의 책, 1999, 259쪽.

56) 李鍾旭, 앞의 책, 1982, 47쪽.

들은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독자적인 정치체를 성립시킨 것으로 이해하였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진한 육부’로 표현했고, 《삼국유사》에도 ‘진한의 땅에 육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육부, 혹은 육촌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진한의 범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진한 육부라는 표현을 그릇된 기록으로 보기도 하지만,⁵⁸⁾ 두 사료 모두 진한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한에 6국이 존재했고, 그것이 후일에 6촌으로 호칭되었으며 진한 6국은 도시국가적인 성격으로 국이 촌과 통용되는 것이라는 이해는 참고가 된다.⁵⁹⁾ 육촌, 육부 문제는 좀 더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여기서는 육촌이 사로국의 범주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국이 육촌 가운데 하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국호로 徐羅伐, 徐伐, 斯羅, 斯盧를 말하면서 또 다른 계통으로 鷄林을 소개하고 있다.⁶⁰⁾ 이에 신라의 왕성·왕도·국호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新羅·徐伐·斯羅와 사랑부·금성이 동음에 의한 이표기이며, 계림과 양부·월성을 동음어에 의한 이표기로 보아 두 가지 계열로 구분한 의견이 있다.⁶¹⁾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금성-서라벌계와 월성-계림계로 나눈 견해와도 상통된다.⁶²⁾

57) 盧重國, 앞의 논문, 1990, 178쪽.

58) 李丙燾, 위의 책, 1985, 597쪽.

59) 文暲鉉, 앞의 책, 1983, 77~78쪽.

60)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

61) 朴恩用, <始林表記의 原意推定-비릇(始)의 單語族과 그 비교 연구> 《韓國傳統文化研究》 창간호, 1985, 63~64쪽.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계림이라는 국호를 김씨 세력의 성립,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⁶³⁾ 《삼국유사》에 김씨 시조로 관념되는 알지 탄생을 계기로 서라벌에서 계림으로 국호를 바꾸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신라 왕위를 차지했던 삼성 세력이 경주지역에서 사로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각각 독자적으로 소국을 성립 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고허촌을 혁거세와 관계된 박씨 세력으로, 그 중심지를 경주가 아닌 상주 지역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⁶⁴⁾ 견해가 다르다. 본고에서는 박씨를 혁거세가 아닌 알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지 역시 경주로 이해하고 있다. 국호의 두 가지 계통 가운데 서벌·사라=사랑부=금성계를 신라 초기 왕통을 계승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되었던 알영 세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삼국지》동이전에 거론되었던 사로국의 실체가 바로 서벌·사라=사랑부(고허촌)이 아닐까 한다.⁶⁵⁾ 그러므로 고허촌의 근거지 역시 경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정치세력으로, 알영은 경주 일대를 지역적 기반으로 했던 사로국 단계의 시조로 전승되던 인물로 여겨진다. 신라사에서 초기 왕계를 점유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되었던 집단은 경주를 기반으로 한 사로국의 지배세력이었다. 알영은 이 사로국 단계에서,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소위 ‘박씨’ 세력이 시조로 인식했던 존재였다.

그러나 사로국과 인근 주변 소국들이 흡수 통합되고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조신화 역시 건국신화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측면

62) 文暲鉉, 앞의 책, 1983, 12쪽.

63) 盧重國, 위의 논문, 1990. 171쪽.

64) 盧重國, 위의 논문, 1990. 180~181쪽.

65) 사랑을 삼성 가운데 김씨 족단과 관련시킨 견해도 있다(이병도, 앞의 책, 1978, 606쪽).

의 시조신화는 건국신화에 포괄되었다.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건국신화는 이 단계에 성립되었으며, 신라의 모태를 형성했던 사로국의 시조였던 알영 전승은 신라의 건국신화 속에 포용되면서 시조비로 설정된 것이 아닐까 한다.

V. 맺음말

알영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알영 전승은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는 등 건국신화에서 혁거세 못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혁거세와 함께 이성으로 칭해졌다. 나아가 시조모 전승에서는 오히려 알영이 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이는 알영이 신라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력 집단의 시조 전승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알영의 기반 세력은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여기서는 오히려 신라 초기 왕위를 점유했던 소위 ‘박씨’로 표현되어 왔던 집단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알영으로 상징되는 초기 신라 역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박씨’라고 했던 이들 세력들은 사랑부(고허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사랑부 세력은 곧 경주지역에 정치체를 형성했던 사로국의 실세이다. 알영은 신라의 모체를 이루었던 이 사로국의 시조 전승이다. 그러나 후에 사로국과 기타 주변 소국이 통합되면서 신라라고 하는 고대국가로 성장되었으며, 이때 주도 세력은 소위 ‘김씨’이다.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각 족단의 시조 전승을 포괄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건국신화가 형성되었고, 사로국 단계의 시조였던 알영은 시조비로 설정되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三國遺事》，《東國輿地勝覽》
- 金杜珍,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一潮閣, 1999.
- 金哲堧, 《韓國古代社會研究》，知識產業社, 1975.
- 文暉鉉, 《新羅史研究》，慶北大學校 出版部, 1983.
-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혜안, 2001.
- 李丙燾, 《三國遺事》 修正版, 廣書出版社, 1984.
-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 조동일, 《韓國文學通史》1, 지식산업사, 1994.
-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 姜英卿, <新羅 傳統信仰의 政治·社會的 機能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1.
- 姜仁求, <新羅 積石封土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 7, 서울대, 1981.
-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의 再構成試圖> 《東洋學》 3, 1973.
- 金杜珍, <新羅 建國神話의 神聖族 관념> 《韓國學論叢》 11, 1988.
- 김선주, <신라의 알영전승과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01.
- 김선주,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史學研究》 99, 2010.
- 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 《文理大教養講座》 1, 1972.
- 金哲堧, <新羅 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 나희라, <신라초기 왕의 성격과 제사> 《한국사론》 23, 서울대, 1990.
- 盧重國, <鷄林國考> 《歷史教育論集》 13·14, 1990.
- 朴南守, <新羅上古金氏系의 起源과 登場> 《慶州史學》 6, 1987.
- 朴恩用, <始林表記의 原意推定-비릇(始)의 單語族과 그 비교 연구> 《韓國傳統文化研究》 창간호, 1985.
- 윤철중, <赫居世神話의 祭儀와 歷史性> 《歷史와 說話》，集文堂, 2000.
- 조현실, <한국 건국 신화의 형성과 재편>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2003.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三品彰英, <古代朝鮮における王者出現の神話と儀禮について> 《史林》 18-1・2・3,
1936.

ABSTRACT

Founding Myth of Silla and Aryeong

Kim, Sun-joo

In the founding myth of Silla, Aryeong is hailed as the queen of Hyeokkeose(赫居世, founding king of Silla), but is of great importance. She has her own birth myth and with Hyeokkeose had called one of the two sage of Silla. In other founding myth in which dynastic founder was born by his mother, Aryeong is more magnified than Hyeokkeose is. This demonstrates that Aryeong w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early stage of the Kingdom's founding. From the fact that each birth myth in the founding myth is related to progenitor transmission, I interpreted Aryeong as a progenitor of a powerhouse that played significant roles during foundation of Silla.

The earlier studies understood Alyeong in relation with the Kim clan whose progenitor is Alji(闕智). However this resear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her relation with the group of the Park(朴) clan who monopolized the throne in early Silla. And also I examined that the Park clan was closely connected with Goheochon which was one of the six villages in founding myth of Silla and was the substance of Saroguk, the leading chiefdom in Gyeongju area before the power leaded by Hyeokgeose was gathering strength.

This paper will argue that Areong was the progenitor of Saroguk, but since Saroguk and other little chiefdoms were integrated and developed to ancient

kingdom, in the founding myth of Silla, Hyeokgeose who represents progenitor transmission of each tribe was portrayed as the founding king of Silla and Aryeong who was the progenitor of Saroguk as his queen.

Key words: Silla, Aryeong, the founding myth, the founding queen, Hyeokgeose, founding king of Silla), Park clan, Goheochon, Gyeongju area, Saroguk

논문 투고일 : 2011. 10. 2 심사 완료일 : 2011. 12. 16 게재 확정일 : 2011. 12. 20